보도자료

배포일 : 2025.2.21.(금)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김재기 과장

스카이데일리, 공공기관 광고 무단 게재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스카이데일리가 심각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면 광고를 게재·배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총 13건의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24년 12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2건, 한국전력공사 5건이 실렸으며, 2025년 1월에도 한국수력원자력 3건, 한국전력공사 3건이 지면 하단 광고로 게재됐다.

< 사진설명 : 스카이데일리 2면 한국수력원자력 광고 >

< 사진설명 : 스카이데일리 2면 한국전력 광고 >하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현 의원실의 질의에 해당 기간 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무단 광고 게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건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제재 요건 검토 및 향후 법적 문제 여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협의 없이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입장 〉

1. 2021년부터 2025년 2월 현재까지 연도별 스카이데일리 광고 관련
-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없다면 스카이데일리 광고 무단 게재 건에 대한 대응 방안

홍보실 미디어소통부장

☐ 해당기간 광고실적은 없음

☐ 확인방법은 동 기간 중 한수원 홍보 협찬 이력 및 언론진흥재단 확인결과 광고 실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 등 언론사의 광고 무단 게재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주사의 허가없이 광고 무단 게재 건은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제재 요건 여부 의견 조회
2. 향후 광고 무단 게재의 법적 문제점 여부 검토

〈 한국전력공사 입장 〉

☐ 스카이데일리 광고관련 사실관계파악 및 한전 입장

홍보처 언론홍보실 차장

☐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최근 7년간('19~'25년)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없음

☐ 뉴스토마토에 전화하여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 스카이데일리에서 우리회사와 협의없이 지면에 광고를 게재한 부분이 뉴스토마토기사(2.18일자)에 사진으로 나와있어, 잘못된 사실에 대해 수정요청을 하였음

☐ 스카이데일리에서 광고를 무단게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협의없이 광고게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단 광고 게재가 업무방해 소지가 있으며, 특히 광고 내용이 해당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르거나 기관의 정책과 충돌할 경우, 기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공공기관 광고는 정책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 언론사가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의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 게재 금지 요청과 법적 조치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해당 기관의 광고가 게재된 스카이데일리 신문 지면(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월 간)